

李賀 諷諭詩 研究*

姜 昌 洙**

Ⅰ 국문초록 Ⅰ

왕족이라 하나 몰락한 집안의 가난한 서생이었던 李賀는 避諱라는 악습으로 인해 진사시에 응시조차 하지 못하고, ‘懷才不遇’의 울분 속에서 240여수의 시를 남기고 불과 스물일곱에 나이로 요절했다. 과거 그가 남긴 풍유시는 귀신시나 애정시에 비해 높이 평가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풍유시는 풍유시의 창시자인 백거이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다. 특히 시가 함축이나 상징을 그 특징으로 한다면, 그가 사용한 시어 등은 예술적 방면에서는 백거이의 시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하 풍유시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논하였다. 첫째가 最高 統治者에 대한 비판이다. 거기엔 진정 용맹한 장군은 등용하지 않고 환관을 대장군으로 임명한 황제에 대한 비판과 번진의 발호를 막지 못하는 황제의 무능함과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어리석음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支配 階層에 대한 비판이다. 징세를 통한 관리들의 수탈과 부자들의 荒淫과 사치와 왕족의 권력 남용과 전횡에 대한 비판 등을 노래했다. 셋째 民衆의 苦痛에 대한 同情이다. 나라의 사업에 징용되어 불행한 삶을 사는 노인, 궁중에 윤패되어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적시는 궁녀의 슬픔, 그리고 회재불우의 노래 등이 그것이다.

[주제어] 李賀, 諷諭詩, 白居易, 최고 통치자, 지배 계층, 민중

Ⅰ 목 차 Ⅰ

I. 緒 言	III. 結 語
II. 本 論	

I. 緒 言

스물일곱을 살고 요절한 시인, 왕족이라 하나 몰락한 가문의 가난한 서생, 더욱이 부친의 함자 ‘罍’자가 進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서경대학교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중어전공 교수 / wajoong@naver.com

士의 ‘進’과 발음이 같다하여 進士試에 응시조차 못하고 겨우 종9품의 奉禮郎이란 말직을 蔭敍의 덕으로 얻었으나 3년 봉직 후 사직하고 귀향한 시인. 그의 詩는 그러한 자신의 삶의 기록이자 유일한 위로였을 것이다.

李賀는 唐 德宗 貞元 6年인 西紀 790년에 태어나 憲宗 元和 11年인 816년에 죽었다. 享年 스물일곱, 남긴 詩는 향년만큼이나 적은 불과 241수다.¹⁾ 楊文雄은 李賀의 시를 “개인적 삶의 투쟁과 반성, 현실의 좌절과 諷諭, 宮怨·閨情과 애정, 특수한 시간의식, 역사의 繁華와 幻滅, 황망한 귀신세계” 등 여섯 종류로 나누었고,²⁾ 宋幸根은 “紋情詩, 神怪詩, 諷諭詩, 詠史詩, 宮體·宮怨詩, 詠物詩, 交友詩” 등 7종류로 분류하였다.³⁾

과거 李賀 詩에 대한 평가는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직관적”⁴⁾인 인상식의 비평이었고, 게다가 후인들은 전인들의 인상식 평가를 답습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예컨대 劉大杰이 “귀족출신이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서 부유한 생활을 누려, 사회생활의 실제 체험이 부족하여, 따라서 시가 내용적으로 비교적 결핍되었다.”⁵⁾라고 한 이래, 많은 문학사에서 劉大杰의 단편적이고 인상적인 평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하였다. 근자에 들어 그러한 비판은 많이 교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하 시에 대한 연구가 閨情과 宮怨 등을 읊은 시나 神怪詩 등에 치중되어 있는 점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詩가 한 시인의 독특한 삶과 의식의 세계를 반영한다고 한다면, 시에 대한 연구는 인상식의 비평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작품을 통한 분석과 비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본고는 인상비평식의 단편적인 연구를 지양하고 구체적 작품의 분석이라는 실제적 비평을 통하여 李賀 諷諭詩의 가치와 진면목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本 論

諷諭詩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白居易(772~846)라고 할 수 있다. 그는 「與元九書」에서 자신의 시를 諷諭詩·閑適詩·感傷詩·雜律詩 등 네 종류로 나누었는데, 그 중 풍유시에 대해서 “좌습유 벼슬을 한 이래, 무릇 체험하고 느낀 바를 비홍의 방법으로 찬미하거나 풍자한 시들이 있다. 또 高祖 武德 연간에서 憲宗 元和 연간에 이르는 기간의 사실에 의거해 신악부라고 제목을 붙인 시가 모두 150수인데, 그것을 풍유시라고 하였다.”⁶⁾라고 하였다. 즉 白居易가 말한 풍유시의 구체적 산물이 바로 新樂府란 의미인 것이다. 「新樂

1) 葉葱奇가 校注한 『李賀詩集』(台北: 里仁書局, 民國 71)을 기준으로 한 숫자임. 현존하는 李賀의 시는 4卷本 219首와 5卷本 242首 등이 있다. 板本에 대해서는 宋幸根 「李賀詩研究·第一章 3節 李賀集 板本 概況」 참조, 全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6, 13~16쪽.

2) 楊文雄, 『李賀詩研究』, 台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69, 222~247쪽.

3) 宋幸根, 앞의 논문, 47~160쪽.

4) 劉若愚(著), 李章佑(譯), 『中國의 文學理論』, 서울: 同和出版社, 1984, 22쪽.

5)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台北: 華正書局, 民國 71, 496쪽.

6) 白居易, 「與元九書」, “自拾遺來, 凡所遇所感, 矣於美刺興比者; 又自武德至元和, 因事立題, 題為新樂府者, 共一百五十首, 謂之諷諭詩.”

府」50首와「秦中吟」10首를 포함, 도합 172首의 풍유시는 사회의 부조리한 현상들을 폭로하여 객관적 형상과 說理를 결합시켰는데, 그 속에는 민간의 질고를 반영하거나, 귀족을 풍자했고, 부녀를 동정하거나 전쟁을 증오했고, 친구에게 증여하거나 황제에게 仁政을 호소했고, 그리고 충절을 찬양하는 일곱 가지 소재가 들어 있다.⁷⁾ 본고에서는 이상을 참고로 하여 李賀 諷諭詩의 내용을 最高 統治者에 대한 批判, 支配 階層에 대한 批判, 民衆의 苦痛에 대한 同情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1. 最高 統治者에 대한 비판

李賀는 德宗·順宗·憲宗의 三代를 살았지만, 그가 주로 시를 창작한 시기는 憲宗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唐朝는 이미 통치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강력했던 대제국 唐은 安史의 亂을 거치면서 이미 쇠락의 길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쇠락의 중심에는 최고 통치자 황제가 있었고, 쇠락은 몇 가지 징조와 형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환관의 전횡과 藩鎮의 발호라는 외부적 요인과 不老長生을 추구하는 황제 자신의 내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그것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총괄적으로 최고통치자인 황제에게 귀결된다. 먼저 呂將軍이라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분냄새 풍기는 환관을 대장군으로 임명한 황제 憲宗을 비판한 시를 보자.

「呂將軍歌」

01呂將軍

02騎赤兔

03獨攜大膽出秦門

04金粟堆邊哭陵樹

05北方逆氣汗青天

06劍龍夜叫將軍閒

07將軍振袖拂劍鏑

08玉闕朱城有門閣

09檣檣銀龜搖白馬

10傳粉女郎火旗下

11恆山鐵騎請金槍

12遙聞簾中花箭香

13西郊寒蓬葉如刺

14皇天新裁養神驥

15殿中高桁排蹇蹄

16飽食青芻飲白水

여장군의 노래

여장군

적토마 타고

홀로 용기 내어 장안성문을 나서

울산 앞 玄宗의 릉 나무 앞에 호곡한다

북방 반란군의 기운 푸른 하늘 더럽힐 때

보검의 龍 밤마다 울어도 장군은 한가하다

장군은 옷소매 떨치며 예리한 칼날을 닦지만

구중궁궐 궁성은 문과 문설주로 막혀 있다

허리에는 은거북 도장차고 백마 타고 왔다갔다

분바른 내시가 대장되어 火紅의 깃발 아래

향산의 반란군 鐵騎타고 도전해 오는데

반란군 멀리서도 냄새 맡네 화살통 꽃화살의 분냄새를

서쪽 교외의 찬 속은 이파리가 가시 같은데

황제가 새로 심어 駿馬에게 먹인다

마구간 높은 도리끼 나무엔 둔마들만 가득한데

신선한 풀 배불리 먹고 맑은 물 마신다

7) 褚斌杰, 『白居易評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0, 81쪽.

17圓蒼低迷蓋張地	하늘도 어둑하고 막막하여 땅을 덮은 것 같으니
18九州人事皆如此	천하의 모든 일이 이와 같구나
19赤山秀鋌禦時英	赤山날카로운 칼은 적을 막는 좋은 무기
20綠眼將軍會天意	푸른 눈의 여장군은 하늘의 뜻을 아시리라

이 시는 憲宗 元和 4年(809) 20세 때 지은 것이다.⁸⁾ 그 해 成德軍 절도사로 있던 王承宗이 반란을 일으키자, 憲宗은 환관 吐突承璀·宋惟澄·劉國珍·馬江朝 등을 장수로 임명하여 전쟁터로 내보냈다.⁹⁾ 제10구의 ‘傳粉女郎’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呂將軍, 騎赤兔’에서 呂將軍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일설에는 唐 憲宗이 환관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데 반대한 呂元膺을 가리킨다고 한다.¹⁰⁾ ‘赤兔’는 일찍이 三國時代에 呂布가 탔다는 명마의 이름이다. 이 시의 주인공 呂將軍이 呂布와 같은 呂氏이므로 적토마를 내세워 여장군의 용맹함을 칭찬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제3구 ‘秦門’은 장안성의 성문을 가리킨다. 제4구 ‘金粟堆’는 金粟山으로 지금의 陝西省 蒲城縣 동북쪽에 있으며 唐 玄宗 李隆基의 능묘가 있는 곳이다. ‘哭陵樹’는 임금의 은혜를 잊지 못해 그 능묘 앞에 가서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데, 唐의 제도에 신하가 가슴에 맺힌 것이 있을 때 제왕의 능에 가서 호곡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한다. 제5구는 북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제6구의 ‘劍龍’은 여기서는 칼집에 들어있는 칼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志士는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워야하는데, 여장군은 閑職에 버려지고 명검은 밤에 운다고 표현한 것이다. 제7~8구는 장군의 전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지만, 황제는 구중궁궐에 파묻혀 있어 알현하기조차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이상 여덟 구는 첫째 단락으로 나라를 위해 나아가 싸우고자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장군의 울분과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지 못하는 황제의 우둔함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9~10구는 위의 여장군과는 대조적으로, 대장군에 임명된 환관의 한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급기야 제11~12구는 반란군이 쳐들어오는 모습과 그에 대항조차 하지 못하는 환관사령관의 추태를 그리고 있다. 이상 네 구는 둘째 단락으로, 환관사령관의 용렬함과 나약함을 노래하고 있다. 제13~14구와 제15~16구에서는 입안을 찌르는 가시풀을 먹이는 어리석은 황제와 그것을 먹는 불쌍한 駿馬, 하지만 마구간에서 편히 지내며 맑은 물을 마시고 좋은 풀을 먹는 둔마를 비교하며 전도된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은 제17~20구까지로 천하의 모든 일이 이와 같이 어그러진 현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며 비판하고 있다. 뛰어난 여장군을 등용하여 전쟁에 내보내지 않고, 환관을 사령관으로 삼아 추태를 일삼게 하는 위정자의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판단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준마를 썩히고 둔마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현실과 같으며, 赤山에서 나는 좋은 무기를 쓰지 않고 방치하는 어리석음인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여장군을 쓰지 않는 것, 다만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그 점을 여장군은 알 것이라며 위로하며 끝을 맺고 있다. 詩題는 여장군의 노래이지만, 위정자 憲宗에 대한 비판이며, 자신의 가슴속의 분노를 노래한 것이다. 다음으로 藩鎮의 割據와 跋扈를 비판한 시를 보자.

8) 以下 인용시의 저작 시기는 朱自清, 『李賀年譜』(台北: 河洛圖書出版社, 民國 66); 楊文雄, 앞의 책; 홍상훈, 『시귀의 노래』(서울: 명문당, 2007) 등을 참고로 하였음.

9) 王友勝·李德輝 校註, 『李賀集』, 長沙: 嶺麓書社, 2003, 340쪽.

10) 王友勝·李德輝 校註, 위의 책, 340쪽.

『猛虎行』

01長戈莫春
02其弩莫抨
03乳孫哺子
04教得生獐
05舉頭為城
06掉尾為旌
07東海黃公
08愁見夜行
09道逢騶虞
10牛哀不平
11何用尺刀
12壁上雷鳴
13泰山之下
14婦人哭聲
15官家有程
16吏不敢聽

사나운 호랑이

긴 창으로 찌를 수 없고
쇠뇌로도 쏘아서 뚫을 수 없다
제 새끼들 먹이는데
홍포해지기만 하는구나
머리 쳐드니 성만큼 높고
꼬리 흔들어대니 깃발이다
동해 황공도
겁먹고 한밤중에 몰래 간다
길에서 어진 호랑이 추우를 만나나
맹호 우애는 추우의 모습에 불만이다
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벽 위에서 울고 있구나
태산 아래에는
남편과 자식 잃은 아녀자의 울음소리
관가에는 호랑이 잡는 기한이 있다고
관리는 들으려 조차 하지 않는다

이 시는 憲宗 元和 5年(810) 21세 때, 奉禮郎에 임명되었을 때 지은 것이다. 『猛虎行』은 『樂府·相和歌辭·平調曲』 舊題로 郭茂倩의 『樂府詩集』에는 李賀의 것을 포함, 李白, 韓愈 등의 『猛虎行』 10수가 실려 있다.¹¹⁾ 古辭에는 “군자가 고결한 뜻과 행동으로 인하여 늘 위험에 빠져 功業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을 노래한 것”¹²⁾이라 하였다. 이 시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첫 부분은 제1~6구이다. 제1구 ‘春’은 ‘찌르다, 치다’의 뜻이다. 제2구 ‘抨’은 ‘쏘다’의 뜻이다. 제1~2구는 맹호의 사나움과 악랄함을 표현한 것이다. ‘獐’은 홍악하다는 뜻으로 맹호의 새끼들조차 凶暴하게 자라고 있음을 말한다. 제3~4구는 藩鎮의 割據가 그들의 자손에게 세습되면서 악랄함도 이어짐을 비유한다. 제5~6구의 ‘舉頭’와 ‘掉尾’는 난리를 일으키는 모양이 흉악하여 제지하기가 어려움을 형용한 것이다. 이상은 猛虎의 홍포함을 노래했는데, 藩鎮이 할거하면서 성을 쌓고 스스로 왕으로 칭하며 唐朝의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것을 비유한다. 둘째 부분은 제7~10구이다. 제7구 東海 黃公은 『西京雜記』에 나오는 고사로, 소싯적엔 술법을 하여 호랑이를 제압할 정도였으나, 늙어서는 기력이 쇠하고 또 음주가 지나쳐서 나중에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는 결국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인물이다. 제9구 ‘騶虞’는 『詩經·召南·騶虞』에 나오는 義로운 동물로, 산 짐승을 먹지 않으며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지만 호랑이의 성질은 없다는 동물이다. 제10구 ‘牛哀’는 맹호를 말한다. 이 두 구는 ‘騶虞’가 부질없이 호랑이 모양을 하고 오직 仁義를 말하는 것에 대해, 맹호인 ‘牛哀’가 아무 쓸모없는 ‘騶虞’를 미워한다는 것을

11) 郭茂倩, 『樂府詩集』, 台北: 里仁書局, 民國 73, 188쪽.

12) 王友勝·李德輝 校註, 앞의 책, 281쪽.

말한다. 제9~10구 두 구는 亂을 일으킨 藩鎮인 牛哀가 조정에 굴복하고 협조하는 藩鎮인 騶虞에게 불만인 것을 비유한다. 변진에도 종류가 있는 것이다. 이상 둘째 부분은 黃公의 고사와 騶虞의 고사를 인용하여, 仁義의 무용함을 노래하고 있다. 셋째 부분은 제11에서 마지막 16구까지이다. 제11~12구는 사람들이 호랑이를 무서워하여 칼을 쓰지 않으면,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는 칼이 분해서 스스로 소리를 낸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즉 조정이 변진을 두려워하여 병사를 길러 출동시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제13~14구는 『禮記·檀弓』에 나오는 말로 ‘苛政猛於虎’ 고사의 출전이다. 제15~16구는 관가에서 호랑이를 잡는 기한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호랑이를 잡지 못하고, 결국 아녀자는 남편과 자식을 모두 호랑이에게 먹힌 것을 말한다. 이 두 구는 조정에서 아무리 藩鎮을 토벌할 명령을 내려도 관리는 그에 따르지 않아서 결국 나라는 위험에 처하는 것을 상징한다.

猛虎는 심한 폐해로서 할거하는 藩鎮을 상징한다. 아녀자는 고통 받는 민중을 대표한다. 官은 맹호의 폐해 즉 변진의 발호에 대해서 허장성세를 일삼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런 소용없는 존재일 뿐이다. 중당 시기 변진의 발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큰 변진은 10여 개의 州를, 작은 변진은 서너 개의 州를 차지하고 정치·군사·경제 등 모든 분야를 한 손에 장악하고 자손 대대로 횡포를 일삼았고, 일반 백성의 생활은 도탄에 빠졌다. 시인은 변진의 횡포를 고발하고 민중에게 위해를 가하는 죄악을 폭로한다. 또한 통치자의 판단 착오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변진의 폐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표명한다. 全詩가 꾸밈없이 담백하지만, 그 의미는 깊다. 다만 典故가 많이 사용됨으로써 전고를 알지 않으면 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점으로 인하여 뜻이 심원하고 시어가 경제적이어서 맹호의 포악하고 가증스러운 형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시인의 우국충정과 時政에 대한 감정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황제가 方士를 가까이 하며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망령됨을 비판한 시를 보자.

「古悠悠行」

01白景歸西山
02碧華上迢迢
03今古何處盡
04千歲隨風飄
05海沙變成石
06魚沫吹秦橋
07空光遠流浪
08銅柱從年銷

아득한 옛날

하얀 해는 서산으로 지고
달빛에 비친 파란 구름은 하늘 위로 아득하다
고금의 시간은 어디에서 다했는가
천년 세월 바람 따라 회오리친다
바다 모래는 돌이 되고
물고기 포말은 진시황 다리 아래에서 불어온다
시간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흐르고
구리 기둥은 세월 따라 사라진다

이 시는 元和 5년(810)에서 8년(813)사이 長安에서 奉禮郎으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1구 ‘白景’은 白日이다. 제2구 ‘碧華’에 대해서 宋의 吳正子是 “해가 질 때 푸른 구름이 위로 피어오른다.(日落時有碧雲上騰.)”¹³⁾라고 하여, 해와 구름으로 본 반면, 明의 曾益은 “白景은 해고, 碧華는 달이다.(白景, 日也. 碧華,

月也.)¹⁴⁾라고 하여 해와 달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달빛에 비친 파란 구름’으로 풀었다. ‘迢迢’는 높고 아득한 모양이다. 이상 전반 네 구는 해가 지고 달이 뜨며 시간이 순환하는 것을 표현하였다. 또한 천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 같지만, 전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회오리바람처럼 눈 깜짝할 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불과 백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란 것이 참으로 허망한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6구 ‘秦橋’는 秦始皇이 만들었다는 다리이다. 『三齊略記』에는 “진시황이 바다 가운데 돌다리를 만들었고, 바다 신이 기둥을 세웠다.……청선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로 성을 쌓고, 바다 30리를 들어가 물고기를 쏘아, 물색이 핏빛에 몇 리가 변했는데, 지금까지 그러하다.”¹⁵⁾라고 되어 있다. 제7구 ‘空光’은 시간을 말한다. 제8구 ‘銅柱’에 대해서 宋의 吳正子是 『神異經』에 나오는 崑崙山의 구리 기둥이라 하였고, 葉慈奇는 漢 武帝가 이슬을 받던 쟁반인 ‘承露盤’이라고 하였다.¹⁶⁾ 이상 후반 네 구는 물질의 소멸에 따른 시간의 변천을 노래했다. 秦始皇과 漢 武帝는 어떠한가? 그토록 不死를 추구했던 그들, 秦始皇이 만들었다는 돌다리, 漢 武帝가 만들었다는 구리 기둥, 그 모두가 세월의 흐름에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秦始皇과 漢 武帝의 불로장생 추구를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시 憲宗이 신선술과 方士를 가까이 하며 불로장생을 추구한 것에 대하여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王琦는 “시간의 순환은 끝이 없다. 천 년이라는 세월은 긴 것 같지만, 도통한 사람의 눈에는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같다. 바다 모래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돌이 된다. 진시황이 다리를 만든 곳에는 물고기들이 거품을 뿜을 뿐이다. 뿜나무 발이 바다가 됨은 참으로 진실인 것이다. 한 무제가 세웠다는 구리 기둥은 원래 장생을 구하고자 만든 것이지만, 세월이 오래 지난 지금, 구리 기둥 역시 소멸하고 없다. 무릇 웅대한 재능과 지략을 가진 漢 武帝 같은 이도 세간에서 장생을 구했지만 얻지 못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라? 이 시는 대개 풍자인 것이다.”¹⁷⁾라고 하였는데, 이 시의 의미를 가장 잘 대변한다고 여겨진다.

「官街鼓」

큰길의 북소리

01曉聲隆隆催轉日	새벽 북소리 둥둥 해 뜨길 재촉하고
02暮聲隆隆催月出	저녁 북소리 둥둥 달 솟길 재촉한다
03漢城黃柳映新簾	장안의 노란 버들잎 새로이 珠簾에 비치고
04柏陵飛燕埋香骨	측백나무 사이 무덤엔 趙飛燕의 향기로운 뼈 묻혔다
05碓碎千年日長白	북소리 천년을 부숴어도 해는 길이 빛나는 것
06孝武秦皇聽不得	그 북소리 한 무제와 진시황은 듣지 못하였다

13) 王友勝·李德輝 校註, 위의 책, 95쪽.

14) 曾益, 『昌谷集』 卷二, 台北: 世界書局, 民國 71, 48쪽.

15) 王友勝·李德輝 校註, 앞의 책, 95쪽 再引用, “秦始皇於海中作石橋, 海神爲之豎柱……祭青城山, 築石城, 入海三十里射魚, 水變色如血者數里, 於今猶爾.”

16) 葉慈奇 校註, 『李賀詩集』, 앞의 책, 79쪽.

17) 王琦, 『李長吉歌詩集解』, 台北: 世界書局, 民國 71, 80쪽. “晝夜循環, 無有窮盡. 以千歲之久, 而達人觀之, 一如風飄之疾速. 海沙之細, 經歷多年長大成石. 秦王造橋之處, 又見群魚吹沫其間. 桑田滄海, 洵有之矣. 漢武所立銅柱, 原以爲長生之計, 今年遠代更, 銅柱亦銷滅不存. 夫以武帝之雄才大略, 欲求長生於世間尙不可得, 況他人乎? 此詩蓋以諷也.”

07從君翠髮蘆花色	그대 푸르던 머리칼 갈대꽃처럼 희어져도
08獨共南山守中國	홀로 남산과 더불어 京城을 지키리
09幾回天上葬神仙	몇 번이었던가 천상에서 신선의 장례를 지낸 것이
10漏聲相將無斷絕	물시계 소리만 북소리와 함께 끊어질 줄 모른다

이 시는 元和 5년(810)에서 8년(813)사이 長安에서 奉禮郎으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官街鼓’는 수도 長安의 큰길에 夜警과 시간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북이다. 이 두 구는 새벽의 북소리와 저녁의 북소리를 노래했다. 제3구 ‘漢城’은 長安을 가리킨다. 漢과 唐은 모두 長安에 도읍했다. 제4구 ‘柏陵’은 왕의 능을 가리킨다. 唐代에는 왕실의 능원 주위에 측백나무를 심어 능을 가렸다고 한다. ‘飛燕’은 西漢 成帝의 妃인 趙飛燕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妃嬪을 통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구는 당시 왕이 죽으면 妃嬪이 함께 묻혔음을 암시한다. 제6구 ‘孝武’와 ‘秦皇’은 漢 武帝와 秦始皇을 가리킨다. 두 사람에게서는 그토록 불로장생을 갈망하고 추구한 공통점이 있다. 이상 여섯 구는 끊임없는 북소리와 인간 세상의 허망함을 대비하며 노래한다. 즉 천년의 세월을 두고 북소리는 이어지지만, 늙은 왕은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등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 불로장생을 추구했던 漢 武帝나 秦始皇도 모두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제7구 ‘君’은 漢 武帝와 秦始皇을 가리킨다. 제8구 ‘共南山’과 ‘守中國’ 즉 수도 장안이 오랫동안 남산과 함께 하는 것처럼, 漢 武帝와 秦始皇 그들도 모두 장생불사의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不死의 존재라는 신선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들의 장생불사 추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또한 그들이 없어도 세상과 시간은 그렇게 영원히 흘러간다는 것을 제9~10구에서 노래하고 있다. 이상 네 구는 늙는 것은 자연 현상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도 남산처럼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천상에도 장생불사의 신선은 없다, 다만 물시계 소리 북소리만이 영원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는 시인이 어느 날 새벽 북소리를 듣고 문득 일어난 감흥을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감흥은 시간의 영원함과 유한한 인간 생명에 대한 슬픔일 수도 있고, 방사들을 가까이 하며 불로장생을 추구했던 당시의 황제 憲宗을 풍자하는 것일 수도 있다. 淸의 陳本禮는 이 시가 “이하가 社稷의 안정을 기원하는 시이다. 불로장생을 비난하는 시라고 보는 것은 健長吉祝國之詞……此詩有作議求長生者，似屬 牽強”¹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王琦는 “이 시는 대체로 장생을 추구하는 것을 풍자한 것인데, 큰 길의 북을 빌려 제목으로 삼아 그 뜻을 펼치고 있다.(此詩蓋爲求長生者諷，而借官街鼓作題，以發其意.)”¹⁹⁾라고 하여 이 시의 풍자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支配 階層에 대한 비판

최고통치자인 황제에 이어 비판의 대상이 된 계급은 귀족 등 지배 계층이다. 낮은 계층으로는 마을의 아

18) 王友勝·李德輝 校註, 앞의 책, 353쪽 再引用.

19) 王琦, 앞의 책, 167쪽.

전이나 縣官을 들 수 있고, 그 위로는 太守, 그보다 높은 계층은 공주나 왕족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부유한 귀족 계층 역시 비판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들은 상위 계층의 위임이나 묵인을 받고 일반 백성을 수탈하였으며 사치와 淫樂을 일삼았다. 먼저 관리들의 수탈을 노래한 시를 보자.

「感諷五首·其一」

느낌을 풍자하다

01合浦無明珠	합浦에는 도통 명주는 나지 않고
02龍洲無木奴	龍洲에는 도무지 굴나무 없다
03足知造化力	이것으로 족히 알 수 있다 대자연의 힘으로도
04不給使君須	使君의 수요를 댈 수 없음
05越婦未織作	越나라 부인네 아직 방직을 시작 못했고
06吳蠶始蠕蠕	吳나라 땅 누에는 이제야 겨우 꿈틀거린다
07縣官騎馬來	縣의 官吏 말 타고 조세 재촉하러 오는 모습
08擿色虬紫鬚	사나운 기색에 꿈틀거리는 자색의 구레나룻
09懷中一方板	품속에서 네모난 판쪽 하나
10板上數行書	그 위에 쓰여 있는 몇 줄 글
11不因使君怒	“원님이 노하시지 않았다면
12焉得詣爾廬	어찌 네 집에 찾아왔겠는가?”
13越婦拜縣官	越婦는 縣官에게 굽신거리며
14桑牙今尚小	“뽕잎이 지금은 아직 작으니
15會待春日晏	늦은 봄 되기를 기다려야
16絲車方擲掉	비로소 방직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17越婦通言語	월부가 통사정의 말할 때
18小姑具黃粱	그 시누이 기장쌀밥 차려 내온다
19縣官嚙飡去	현관이 게걸스럽게 먹고 돌아가니
20簿吏復登堂	다시 또 書記가 찾아온다

「感諷」은 다섯 首로 이루어진 연작시이다. 이 시들은 시인이 長安에서 奉禮郎으로 있던 시기(810~813)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抒情도 있고, 敘事도 있다. ‘感諷’은 ‘느낀 바를 풍자한다’는 의미로, 陳子昂이나 張九齡의 「感遇」와 유사한데, 주로 현실에 대한 감개를 노래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제1수를 다룬다.

제1구 ‘合浦’는 지금의 廣東省 合浦縣으로 珠玉의 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合浦에 명주가 없다는 것은 바로 태수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제2구 ‘龍洲’는 龍陽洲로 지금의 湖南省 漢壽縣이다. ‘木奴’는 三國時代 吳나라의 丹陽 太守를 지낸 李衡이 굴나무를 심고 그것을 ‘나무 하인’ 즉 ‘木奴’라고 했다고 한다.²⁰⁾ 제2구도 제1구와 마찬가지로 탐관오리의 民弊를 상징한다. 제3구 ‘造化’는 대 자연을 말한다. 제4구

20) 王友勝·李德輝 校註, 앞의 책, 175쪽.

‘使君’은 郡의 태수로 여기서는 刺史를 가리킨다. 이상 네 구는 대자연이 만들어주는 풍부한 물산도 탐관오리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으로, 全詩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가 선명하고 시어가 예리하여 시인의 분개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분개는 全詩에 걸쳐있다. 제6구 ‘蠕蠕’는 꿈틀거리는 모양으로 누에가 아직 자라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이다. 제5~6구는 일반적인 서술에 불과한 것 같지만 관가의 잔혹한 逼迫을 예견하는 표현이다. 제8구 ‘籜色’은 사납고 흉악한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제7~8구에서는 말을 타고 나타나는 관리의 거들먹거리는 모습과 사나운 표정과 썰물거리는 수염에서, 독자는 뽐박하는 관가에 대해 증오의 심정을 가질 것이다. 제9구 ‘方板’은 고대에 글을 쓸 때 사용하던 나무판으로, 여기서는 세금통지서를 말한다. 제9~10구의 ‘품속에서 판쪽을 하나 꺼내는’ 행위는 그것이 관리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관부의 규정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비판의 화살이 관부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1~12 두 구는 縣官의 狐假虎威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본질적으로 使君과 한패임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습과 행동과 언어 등을 통하여 관리의 형상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하 제13~18의 6구는 현관의 직접적 대화에 이은 아낙의 대답으로, 아낙의 애원과 현관이 응수한 대접을 받는 것이 대비된다. 특히 ‘拜’자는 아낙의 애원과 곤혹함을 두드러지게 하는 字眼의 하나이다. 이상의 시구들은 객관적인 사실의 서술이면서도 시인의 민중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다. 마지막 두 구는 일종의 보충이며 여운이다. 게걸스럽게 먹어대는 縣官의 모습은 독자에게 증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마지막 구의 ‘復’은 이러한 착취가 끝이 없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字眼의 하나이다.

이 시는 杜甫의 「三吏」·「三別」白居易의 「新樂府」·「秦中吟」과 그 格調와 意趣가 유사한데, 太守·縣官·簿吏 등의 徵稅를 통한 민중에 대한 착취는 中唐 시기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뽐박받는 민중의 현실과 고통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²¹⁾ 무엇보다 全詩를 관통하고 있는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의 모습이 아주 생동적이다. 또한 이 叙事詩는 객관적 서술과 주관적 감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예술적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형상이 선명하며 또한 대화를 통한 신분적 성격이 정확하게 묘사된 수작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시는 공주의 철없는 망동을 비판한 시이다. 물론 그 망동은 황제의 允許 아래 이루어졌을 것이다.

「貴主征行樂」

01奚騎黃銅連鎖甲
02羅旗香幹金畫葉
03中軍留醉河陽城
04嬌嘶紫燕踏花行
05春營騎將如紅玉
06走馬捎鞭上空綠
07女垣素月角啾啾
08牙帳未開分錦衣

공주의 전쟁 나들이

여종이 말 타고 정교하게 만든 황동 갑옷 입고 가는데
향나무 깃대에 금빛 수놓은 비단 깃발 휘날린다
중군은 하양성에 머물며 술 취하고
예쁘게 우는 자연마는 꽃 밟으며 간다
봄날 군영의 말 탄 장수는 붉은 옥같은 미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니 가볍게 하늘로 올라가듯
흰 달빛 아래 담장에서 뿔피리 소리 가늘게 이어지는데
장군의 장막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비단 옷 나눠 갖네

21) 沈惠樂, 『李賀詩選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67쪽 참조.

이 시는 元和 5년(810) 長安에서 奉禮郎으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목의 ‘貴主’는 존귀한 공주라는 뜻으로 唐代에는 습관적으로 공주를 貴主라고 불렀다고 한다.²²⁾ ‘征行’은 군대를 인솔하여 정벌전쟁에 나아감을 의미한다. 그런데 거기에 ‘樂’자를 붙여서 제목 자체부터 묘한 모순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제1구 ‘奚’는 여자 노복을, ‘黃銅連鎖甲’은 황동으로 정교하게 만든 갑옷이다. 제2구 ‘香幹’은 향나무로 깃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제4구 ‘紫燕’은 漢의 文帝가 소유했다는 자연마를 말한다. 제5구 ‘紅玉’은 漢 文帝의 총애를 받았던 趙飛燕·趙昭儀 자매의 아름다움을 비유한 것이다. 『西京雜記』卷1에는 “조비연은 몸이 가볍고 허리가 가늘어서 걸음을 잘 걸어, 동생인 조소의가 따라가지 못했다. 하지만 조소의는 체격이 가냘프지만 피부가 매끈하고 더욱이 우스갯소리를 잘했다. 두 사람은 모두 여색이 紅玉같아서 당시 제일이었다.”²³⁾라고 되어있다. 제6구 ‘上空緣’은 말이 가볍게 달리는 모습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것을 형용한 말이다. 제7구 ‘女垣’은 城위의 작은 담을 말한다. 제8구 ‘牙帳’은 장군이 머무는 장막을 말하는데, 장군의 깃발인 牙旗가 그 장군의 장막 앞에 서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分錦衣’는 비단으로 수놓은 옷을 아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시는 公主가 여인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인솔하여 전쟁에 나가는 모습과 전쟁 중인 막사에서 연회를 벌이는 추태 등을 노래했다. 전반 6구는 공주가 이끄는 군대의 화려한 모습, 여자 병사들이 입은 아름다운 옷과 깃발의 아름다운 모습 등을 묘사했는데, 모두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공주의 遊樂 행차의 모습이다. 河陽에 도착해서는 연회를 베푸는 모습, 인솔하는 여자 장수의 아름다운 모습 등은 모두 국가의 대사로써 정벌 전쟁에 나가는 비장하고 엄숙한 모습이 아니다. 끝 두 구는 城에는 높이 열린 달이 걸려있고, 기상해야 하는 뿔피리 소리가 들려오는데 장군은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 모습, 계다가 군영에서는 이미 여자 병졸들끼리 비단 수놓은 예쁜 옷을 다투어 나눠 갖는 모습 등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정벌 전쟁에 나선 비장하고 엄숙한 모습이 아니라 遊樂의 행위인 것이다. 淸의 王琦는 “아마도 당시에 공주가 행차를 나서서 하양의 성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하가 그것을 보고 지은 시일 것이다.(疑在當時有公主出行, 宴飲於河陽城中, 長吉見之而作是詩.)”²⁴⁾라고 하였다. 시인은 제목을 ‘貴主征行’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樂’자를 더붙여 ‘貴主征行樂’이라고 하여, 군대의 정벌행위를 游樂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詩題 자체부터 심각한 풍자와 역설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다음 시는 일종의 懷古詩이지만, 왕족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방탕한 일생을 보낸 梁孝王을 비판한 시이다.

「梁臺古意」

01 梁王臺沼空中立

02 天河之水夜飛入

03 臺前^門玉作蛟龍

그 옛날의 양대에서

연못가 양왕의 누대 공중에 우뚝한데

은하수 물이 한밤중에 날아든다

누대 앞엔 옥을 갈아 교룡을 만들었고

22) 王友勝·李德輝 校註, 앞의 책, 138쪽.

23) 『西京雜記』卷1, “趙后體輕腰弱, 善行步進退, 女弟昭儀不能及也. 但昭儀弱骨豐肌, 尤工笑語. 二人并色如紅玉, 爲當時第一.” (王友勝·李德輝 校註, 위의 책, 138쪽 再引用.)

24) 王琦, 앞의 책, 80쪽.

04綠粉掃天愁露濕	이슬에 흠뻑 젖은 푸른 대가 허공에서 하늘거린다
05撞鐘飲酒行射天	잔 부딪혀 술 마시며 하늘로 화살 쏘니
06金虎蹙裘噴血斑	금빛 호랑이 움츠린 갓옷엔 핏자국 얼룩졌다
07朝朝暮暮愁海翻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름겨운 파도가 뒤집어저도
08長繩繫日樂當年	긴 새끼줄로 해를 묶고 쾌락의 시간 보냈다
09芙蓉凝紅得秋色	붉은 부용꽃엔 가을빛이 물들었고
10蘭臉別春啼脈脈	봄과 헤어지는 난초의 얼굴에 눈물이 주루룩
11蘆洲客雁報春來	갈대 섬의 기러기 봄에 다시 온다는 말
12寥落野漣秋漫白	쓸쓸한 들판 해자에 가을이 온통 하얗다

詩題의 ‘梁臺’는 漢 文帝의 아들이자 景帝의 동생인 梁孝王 劉武가 지었다는 樓臺이다. 옛터가 지금의 河南省 商丘에 있다. ‘意’는 四部叢刊本·四庫本에는 ‘愁’로 되어있다. 제1구 ‘空中立’은 평지에 흙을 쌓고 그 위에 누대를 만들어서 누대가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같이 보인다는 말이다. 제2구 ‘夜飛入’은 누대 옆의 연못물이 마치 한밤중에 은하수 물이 흘러들어온 것 같다는 말이다. 제3구는 옥을 깎고 손질하여 용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말이다. 제4구 ‘掃天’은 하늘을 빗질한다는 말로, 여기서는 대나무가 공중에서 하늘거리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이상 제1-4구는 옛날 梁王의 정원의 호화로움을 묘사한 것이다. 제5구 ‘鐘’은 술잔이다. ‘射天’은 하늘로 화살을 쏜다는 말로, 전설에 殷나라의 紂王이 가죽 주머니에 피를 담아 매달아놓고 활로 쏘는 놀이를 하며 그것을 ‘射天’라고 했다고 한다.²⁵⁾ 여기서는 윗사람을 능멸하는 것을 말하는데, 황제가 아님에도 황제를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른 양왕의 그릇된 행위를 상징한다. 제6구 ‘金虎蹙裘’은 갓옷에 황금색 실로 호랑이 수를 도드라지게 수놓았다는 표현이다. 제8구 ‘長繩繫日’은 긴 새끼줄로 해를 묶는다는 말로, 시간이 영원히 멈춰주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제5~8구에서는 교만과 방종 속에 끝없이 행락을 추구하고 국정을 놓단한 梁王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 제11구 ‘客雁’은 기러기가 봄에는 북쪽으로 갔다가, 가을에는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나그네 같다는 말이다. 제12구 ‘寥落’은 적막하다는 말이다. ‘秋漫白’은 이하의 색채자 운용의 특징이다. 가을이라는 계절 ‘秋’에 ‘白’이라는 색채를 덧칠함으로써 허무함이나 공허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상 제9~12구는 과거의 회상 또는 상상에서 현실로 돌아와,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梁臺의 모습을 보며 당시 권력을 휘두른 梁王을 풍자함과 동시에 권력의 허망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

「牡丹種曲」

01蓮枝未長秦蘅老	연꽃 아직 피지 않고 족두리풀은 시들어
02走馬馱金鬪春草	황금 싣고 말을 달려가 모란꽃을 산다
03水灌香泥卻月盆	반달 모양 화분에 담긴 향긋한 흙에 물을 부우니
04一夜綠房迎白曉	하룻밤사이 부푼 꽃봉오리 새벽에 꽃 피운다

모란을 심다

25) 葉慈奇 校注, 앞의 책, 270쪽.

05美人醉語園中煙	미인들의 취한 말소리는 정원 안개 속에서 들리는데
06晚花已散蝶又闌	저녁 꽃은 이미 지고 나비도 날아갔다
07梁王老去羅衣在	양왕은 늙어 죽었지만 후인들은 비단 옷 입고
08拂袖風吹屬國弦	소매 펴럭이는 바람 속 촉국현 노래 소리 가득하다
09歸霞帔拖蜀帳昏	저녁놀 속에 꽃잎 떨어지고 꽃 가리개 어둑한데
10嬌紅落粉寵承恩	곱디고운 붉은 꽃잎 떨어져 총애는 끝났다
11檀郎謝女眠何處	치녀 총각들은 어디에서 잠자는지 흩어지고
12樓臺月明燕夜語	달빛 밝은 누대엔 밤 제비 소리만이

이 시 역시 長安에서 奉禮郎으로 있던 시기(810~813)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1구 ‘秦蘅’은 宋玉 「風賦」의 李善 注에 “秦은 향초, 蘅은 족두리풀이다(秦, 香草也. 蘅, 杜蘅也.)”²⁶⁾라고 하였다. 제2구는 말에 황금을 싣고 가서 春草 즉 牡丹을 사온다는 말이다. 이 두 구는 늦은 봄날은 연꽃이 아직 피지 않았고 족두리 풀은 이미 시든 시기로서, 부호들의 취향이 값비싼 모란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屬’은 벤다는 말로, 여기서는 모란꽃을 사온다는 말이다. 제3구 ‘卻月盆’은 반달 모양의 화분이다. 제4구 ‘綠房’은 꽃 봉우리로, 꽃이 아직 피기 전에는 녹색을 띠고 있다. ‘迎白曉’는 새벽을 맞는다는 말로 여기서는 새벽에 꽃이 피는 것을 말한다. 이상 제1~4구는 제1단락으로 모란을 사서 심고 정성껏 키우는 장면이다. 제5구 ‘園中煙’은 저녁이 되자 정원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말한다. 제6구 ‘晚花已散’은 저녁 무렵 모란꽃이 진 것을 말한다. ‘闌’은 희소하다는 말로 여기서는 날아갔다는 말이다. 제7구 ‘梁王’은 漢 文帝의 아들인 梁孝王 劉武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왕을 비롯한 권문세가의 귀족들을 상징한다. 일설에는 모란으로 유명한 魏紫와 姚黃을 가리키기도 한다.²⁷⁾ 제8구 ‘屬國弦’은 樂府의 相和歌辭의 曲名으로, 蜀지역의 풍광을 노래한 것이다. 이 두 구는 양왕은 이미 죽었지만 비단옷 입은 귀족은 여전히 풍악을 울리며 춤추고 노는 것을 형용한 말로 볼 수 있다. 또는 ‘羅衣’를 ‘모란꽃의 꽃잎’으로 풀어서, 양왕은 죽었으나 모란꽃은 여전히 피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말로 볼 수도 있다. 이상 제5~8구는 제2단락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시절은 모란꽃이 피었다가 금방 시드는 것과 같이 짧음을 비유하고 있다. 권력이나 세력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제9구 ‘帔拖’는 치마가 아래로 늘어진 모습으로, 여기서는 꽃잎이 시든 것을 의미한다. ‘蜀帳’은 蜀에서 나는 종이나 비단으로 만든 꽃 가리개를 말한다. 제10구 ‘嬌紅’은 곱고 아름다운 모란꽃이다. ‘承恩’은 총애를 말한다. 제11구 ‘郎謝女’는 西晉의 시인 潘岳과 東晉의 才女 謝道韞을 가리키는데, 潘岳의 아명이 檀奴였는데서 사람들은 그를 檀郎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여기서 ‘檀郎謝女’는 젊은 남녀의 호칭으로 쓰였으며, 꽃을 감상하는 권문세가의 자녀를 통칭한다. 이상 제9~12구는 마지막 단락으로 황제의 총애를 잃은 권력자들을 저버린 모란꽃에 비유하며 권력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

牡丹은 꽃 중의 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부귀의 상징이기도 하다. 中唐 시기는 長安의 귀족들이

26) 王友勝·李德輝 校註, 앞의 책, 242쪽.

27) 葉慈奇 校註, 앞의 책, 209쪽.

앞을 다투어 모란을 감상하는 풍조가 극성하던 시기였다. 당시 시인들은 그러한 풍조를 시로 노래하여 비판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白居易의 「買花」와 李賀의 이 시 「牡丹種曲」이다. 그러나 백거이의 시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평이한 서술인데 비해, 이 시는 소재를 대하는 각도가 참신하고 내용상 암시하는 풍자적 의미가 훨씬 내밀하며 강렬하다. 통치자의 부패한 생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그 표현의 예술적 형상화를 통하여 표출된 주제와 사회적 의미가 백거이의 시에 비해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²⁸⁾

3. 民衆의 苦痛에 대한 同情

민중의 고통에 대하여 동정을 표현한 노래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위에서 언급한 통치자와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의 노래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민중의 고통의 근원에는 통치자의 惡政과 포악함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배 계층의 착취와 수탈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다만 그 주제나 표현 방식 등이 치중되는 방향에 따라서 분류했을 뿐이다. 다음 시는 옥 캐는 노인의 불행한 삶에 대한 노래로 李賀의 수작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老夫採玉歌」

01採玉採玉須水碧
02琢作步搖徒好色
03老夫飢寒龍為愁
04藍溪水氣無清白
05夜雨岡頭食榛子
06杜鵑口血老夫淚
07藍溪之水厭生人
08身死千年恨溪水
09斜山柏風雨如嘯
10泉腳挂繩青裊裊
11村寒白屋念嬌嬰
12古臺石磴懸腸草

옥 캐는 늙은이의 노래

옥을 캐네, 옥을 캐네, 옥은 수벽이어야 하네
옥 쪼아서 만든 步搖는 부질없는 여인네 장식품일 뿐
늙은이는 추위와 굶주림에 龍은 소란함에 시름겨워
남전산 계곡물엔 맑고 깨끗한 기운 벌써 사라졌다
비 내리는 밤 산등성이에 노숙하며 개암을 먹으니
두견새의 토한 피는 늙은이의 눈물이다
남전산 계수는 얼마나 많은 산 사람을 포식했나
죽은 그 영혼 천년이 지나도 계수를 원망하리라
산비탈 측백나무 비바람에 울부짖는데
계곡물 바닥까지 몸 매단 끈 파리하게 흔들흔들
한촌 초가집에 두고 온 어린 것들 생각
낡은 누대 돌계단엔 현장조만 자라있다

이 시 또한 元和 5년(810)에서 8년(813) 사이 長安에서 奉禮郎으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1구 ‘水碧’은 碧玉을 가리킨다. ‘須’자는 다른 옥은 안 되고 오직 碧玉만을 캐라는 상부의 지시인 것이다. 또한 ‘採玉’을 반복함으로써 그 지시와 고통이 끝없는 것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 제2구 ‘步搖’는 고대 부녀자들이 머리 뒤에 꽂는 장식품이다. ‘徒’자 역시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字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고생해서 옥을 캐 봐야 여인네의 장식에 불과하다는 의미와 동시에 위정자의 부패와 荒淫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제

28) 冯浩非·徐传武, 『李贺诗选译』, 成都: 巴蜀书社, 1991, 154~156쪽.

3구 ‘老夫’는 옥을 캐는 늙은이인데, 늙은이가 옥을 캐다는 것은 壯丁들은 이미 모두 전쟁에 동원되었음을 암시한다. ‘龍為愁’는 옥을 캐느라고 계곡이 소란스러운 것을 형용한다. 제4구 ‘藍溪’는 陝西省 藍田縣 藍田山의 溪谷으로, 자고로 옥으로 유명한 곳이다. 藍田山 아래 30여리 길이의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藍溪’이다. ‘藍溪’에서 나오는 옥을 藍田璧이라 하여 ‘球’에 이어 최상의 상품으로 친다.²⁹⁾ 옥 캐는 소리에 시끄러워 힘들어하는 용이나 계곡물의 혼탁해짐은 모두 老夫의 고통을 두드러지게 하는 시어들이다. 제5~6구는 옥 캐는 늙은이의 슬픔과 고통을 묘사한 시구이다. 제5구가 老夫의 육체적 고통을 상징한다면, 제6구는 노부의 심리적 고통을 비유한다. 제7구 ‘厭’은 포식하다는 뜻이다. 즉 옥을 캐느라고 계곡물에 익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마치 계곡물이 사람을 잡아먹어 배가 부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즉 살아서는 이 계곡을 나서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제8구는 옥을 캐다가 계곡에 빠져죽은 사람들의 끝없는 고통과 원망을 노래했다. 특히 ‘恨溪水’ 석자는 그 의미가 심장한데, 王琦가 ‘관리를 원망하지 않고 계곡물을 원망한다는 것은 微言이다. (夫不恨官吏, 而恨溪水, 微詞也.)’³⁰⁾라고 한 것은 작법의 완곡함을 말한 것으로, 官府에 대한 원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0구 ‘泉腳’은 계곡물의 밑바닥을 말한다. ‘靑裊裊’는 물밑바닥까지 내려가 옥을 캐야하는데, 그때 몸을 묶은 끈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靑’이라는 색채자를 써서 그 흔들리는 모습이 아주 위험함을 암시하고 있다. 시각과 동작의 공감각적인 표현으로 이하 시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11구 ‘白屋’은 흰색의 띠풀로 엮은 집으로 가난한 집임을 표현하고 있다. 제12구 ‘石磴’은 돌계단을, ‘懸腸草’는 ‘思子蔓’ 또는 ‘離別草’라고도 불리는 만생식물이다. 노부는 줄에 매달려 벽옥을 캐다가 언뜻 돌계단에 자란 현장초를 보게 된다. 시인은 ‘思子蔓’ 즉 아들을 생각하는 넝쿨풀 또는 ‘이별초’라고도 불리는 이 풀을 시어로 사용하여, 늙은이가 옥을 캐다가 죽게 되어 가족들과 이별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玉은 천상의 보석이였다. 왕조시대로 들어오면서 옥은 주로 황제를 상징하였다. 고대의 통치자들은 모두 옥을 숭상하였고 더욱이 ‘水碧’이라 불리는 碧玉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였다. 관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대량으로 수벽을 채취하여 통치자에게 바치며 그들의 豪華스러운 생활에 일조하였던 것이다. 그 이면에는 옥을 캐는 사람의 고통과 울분이 점철되어있다고 할 수 있고, 시인은 그 점을 노래한 것이다. 韋應物(737~792)의 「采玉行」은 李賀에 앞서 옥 캐는 사람의 고통을 노래한 시로서 李賀 「老夫採玉歌」의 선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를 보자.

官府徵白丁	관청에서 백성을 징발하여
言采藍溪玉	남전산 계곡의 벽옥을 캐 오라 한다
絕巔夜無家	꼭아 지른 산비탈에 잘 곳조차 없어
深榛雨中宿	비오는 밤 개암나무 사이에서 잔다
獨婦餉糧還	외로운 아낙 밥 날랐다가 돌아 와서는

29) 王友勝·李德輝 校註, 앞의 책, 127쪽.

30) 王琦, 앞의 책, 77쪽.

哀哀舍南哭

집 남쪽에서 슬피 운다

李賀「老夫採玉歌」와 주제뿐만 아니라 시어까지도 상당히 유사하다. 「老夫採玉歌」의 첫 구에 ‘須’자를 사용하여, 藍田山 溪谷의 碧玉만을 캐 오라고 한 것이 관의 명령임을 암시한 것처럼, 이 시에서도 첫 구에 ‘官府’를 사용하여, 옥을 캐 오라는 것이 官의 명령이며 따라서 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다. 중당 시기는 사치 풍조가 만연하고 옥을 숭상하는 기풍이 유행처럼 조성된 시기였다. 그에 따라 옥 캐는 사람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졌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진정으로 가슴아파하면서 노래한 시는 韋應物的 이 시와 李賀의 「老夫採玉歌」 밖에 없다.³¹⁾ 다음 두 수는 일종의 宮怨詩이다. 그러나 화려함이나 애정 등을 노래한 다른 宮怨詩나 閨情詩와는 달리 자유를 갈망하는 궁녀의 고통을 노래한 것이다.

「宮娃歌」

01 蠟光高懸照紗空
02 花房夜搗紅守宮
03 象口吹香氎氎暖
04 七星挂城聞漏板
05 寒入 罽毼殿影昏
06 彩鸞簾額著霜痕
07 啼蛄弔月鉤闌下
08 屈膝銅鋪鎖阿甄
09 夢入家門上沙渚
10 天河落處長洲路
11 願君光明如太陽
12 放妾騎魚撇波去

궁궐 미녀의 노래

촛불 높이 걸려 비단 두른 허공 비추는데
花房에선 밤늦도록 붉은 도마뱀 뺨는구나
코끼리 모양 香爐에 향 피어올라 담요 따사롭고
북두칠성 성에 걸리니 누판 소리 들린다
망호에 찬 기운 서려 궁전 그림자 어둡고
鸞鳥 새긴 발걸이에 찬 서리 맺힌 흔적
달 보고 슬퍼하며 난간 아래 울어대는 땅강아지
겹겹이 잠긴 문고리 속 궁녀의 한 아는 듯
꿈에 드니 고향집 모래톱 보이지만
꿈 깨니 은하 지는 장주 천리 길
태양같이 빛나는 성상께 바라옵건대
첩을 풀어주소서 물고기 타고 파도 헤쳐 고향 가도록

이 시는 元和 元年(806) 전후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윤패된 궁녀의 한을 노래한 것인데, 궁녀는 당시 남방으로 폄적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劉禹錫 등을 상징한다³²⁾고 보기도 한다. ‘宮娃’는 宮女를 말한다. 제1구는 궁녀가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제2구 ‘紅守宮’은 붉은 도마뱀을 뺨아서 만든 朱砂이다. 이 두 구는 궁궐의 삼엄함을 상징한다. 제3구 ‘象口’는 코끼리 모양을 한 향로이다. 제4구 ‘漏板’은 시간을 알리는 누판의 소리를 말한다. 제5구 ‘罽毼’는 망호로서 건물의 처마에 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쳐놓은 그물이다. 제6구 ‘彩鸞簾額’은 난새를 수놓은 주렴 위에 가로 지른 발걸이이다. 제7구 ‘蛄’는 땅강아지라는 곤충이다. 제8구 ‘屈膝’은 문과 기둥을 연결하는 못과 같은 것인데,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이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銅鋪’는 대문 위에 잠그는 자물쇠인데 그 모양이 짐승의 얼굴처럼 생겼다

31) 袁行霈 等 撰寫, 『唐詩鑑賞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3, 1018~1020쪽.

32) 王友勝·李德輝 校註, 앞의 책, 146쪽.

고 한다. ‘阿甄’은 魏 文帝의 사랑을 잃고 버려진 甄부인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총애를 잃은 궁녀를 비유한 것이다. ‘阿’는 六朝 時代에 부인들이 자신의 이름 앞에 많이 붙였다는 수식어이다.³³⁾ 제10구 ‘長洲’는 지금의 江蘇省 吳縣으로, 여기서는 궁녀의 고향집을 가리킨다. 제12구 ‘撇’은 ‘치다’라는 뜻으로 ‘파도를 헤치고 나아 간다’는 말이다. 즉 임금께서 은혜를 베풀어 유폐에서 풀리기만 한다면, 설사 배가 없더라도 물고기와 더불어 헤엄이라도 쳐서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말로서, 원망과 귀향의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이 시는 宮詞類의 시로서, 유폐된 궁녀의 불행한 생활을 묘사한 시이다. 전 8구는 궁녀가 구중궁궐에 유폐된 처량한 모습을 노래했다. 촛불이 높이 걸려 불 밝히고 있는 궁궐에서 주사용으로 쓰는 도마뱀을 간다는 모습은 뭔가 삼엄하고 긴장된 느낌을 갖게 한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과 포근한 담요는 아주 따뜻한 느낌을 주지만, 그러나 긴긴 밤 잠 못 이루고 홀로 누판의 소리를 듣는다. 이어 제5~6구에서는 寒氣가 스며들고 안개가 짙게 끼며 주렴에 서리가 내리는 상황에서 땅강아지만이 달을 보고 우는 으스스한 모습을 그렸다. 마지막 네 구에서는 꿈에서나마 가보는 머나먼 고향집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황제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유폐에서 풀어주지만 하신다면 자신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심지어 맨몸으로 헤엄을 쳐서라도 고향집에 가겠다는 절실함을 노래했다. 특히 마지막의 ‘騎魚撇波’ 녀자는 그 用意가 침통하면서도 用語에 아주 힘이 있다.³⁴⁾

『追賦畫江潭苑四首·其二』

01寶林菊衣單
02蕉花密露寒
03水光蘭澤葉
04重帶剪刀錢
05角暖盤弓易
06靴長上馬難
07淚痕霑寢帳
08勻粉照金鞍

강담원의 그림을 추억하며

가슴가리개 위 흘겹의 노란 국화 빛 옷
칸나꽃 뽀뽀이 그려진 옷에 두껍게 맺힌 이슬
머리칼은 난초 즙을 발라 물처럼 빛나고
길게 늘어뜨린 허리띠는 칼 모양의 돈 같다
따뜻한 날씨라 활 부드러워 당기기 쉬우나
신발은 장화라 말 타기가 어렵다
침상의 장막엔 눈물 흔적 젖어있지만
아침 되면 짙은 분 바르고 말안장에 오른다

이 시는 모두 네 수로 시인이 어릴 적에 동남으로 갔던 기억을 되살려 元和 年間に 지은 시로 추정된다. 네 수 모두 南朝 때의 역사적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는 그 두 번째 시이다. ‘追賦’는 추억 또는 회상하여 시를 짓는 것이다. ‘畫江潭苑’은 ‘江潭苑을 그리다’이다. ‘江潭苑’은 梁나라 궁궐의 정원으로, 梁 武帝가 大同 9년에 설치하였으며, 上元縣 東南쪽에 있다. 王遊苑이라고도 한다.³⁵⁾ 제1구 ‘寶林’은 여인의 속옷을 통칭하는 말로, 여기서는 가슴가리개를 가리킨다. ‘菊衣’는 국화 빛깔의 황색 옷이다. 제2구 ‘蕉花’는 紅蕉로 美人蕉라고도 하는 칸나이다. 이 두 구는 궁녀가 입고 있는 옷을 묘사한 것이다. 노란 單衫을 입고 있는데, 그

33) 葉葱奇 校注, 앞의 책, 123쪽.

34) 葉葱奇 校注, 위의 책, 124쪽.

35) 葉葱奇 校注, 위의 책, 178쪽.

속으로 가슴가리개가 보이는 모습과 칸나가 그려진 노란 단삼 위로 이슬이 두껍게 내려서 아주 추운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³⁶⁾ 제3구는 난초의 즙을 바른 공녀의 머리카락이 반들반들 빛나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³⁷⁾ 제4구 ‘重帶’는 아래로 늘어뜨린 허리띠를 말한다. ‘剪刀錢’은 돈을 가리킨다. 옛날 돈은 칼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이 두 구는 공녀의 복식을 묘사한 시구이다. 제5구 ‘角’은 뿔로 장식한 활이다. ‘盤弓’은 활을 당긴다는 말로, 날씨가 차고 건조하면 활을 당기기가 힘들지만, 날씨가 포근하면 활을 당기기가 쉽다는 말이다. 제5~6구는 공녀의 연약한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제8구 ‘勻粉’은 분을 바르고 사냥에 따라가는 것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照金鞍’은 공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금으로 된 안장을 비추는 모습을 표현했다. 마지막 두 구는 울며 잠을 자는 공녀의 슬픈 모습,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사냥에 따라 나설 수밖에 없어서 질게 화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시는 공녀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제왕의 荒淫을 비난하는 시이다. 첫 두 구에서의 공녀의 요염한 모습에서 황제의 음란함을 엿볼 수 있으며, 마지막 구에서 질게 화장하는 공녀의 모습에서 즐거움이나 아름다움보다는 황제의 노리개로서의 공녀의 고통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것이다.³⁸⁾ 다음 시는 표면적으로는 庾肩吾의 懷才不遇를 노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등용되지 못하는 자신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위로이며 동정인 것이다.

「還自會稽歌·並序」 회계로 돌아오며·서문과 함께

庾肩吾於梁時嘗作宮體謠以應和皇子。及國勢敗，肩吾先潛難會稽，後始還家。僕意其必有遺文，今無得焉，故作還自會稽歌，以補其悲(庾肩吾가 양나라 때 일찍이 宮體謠를 지어 황태자와 화답하였다. 나라가 망함에 이르자, 유견오는 먼저 회계로 숨어들었다가, 훗날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가 반드시 글을 남겨놓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얻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 노래를 지어, 그 슬픔을 보충한다.)

01野粉椒壁黃	들판의 먼지에 초방전 벽은 누렇게 되었고
02濕螢滿梁殿	젖은 반디가 양나라 궁전을 가득 채웠다
03臺城應教人	양나라 조정의 궁정시인으로
04秋衾夢銅輦	가을 이불 덮고 자면서 구리 수레 꿈을 꾸었다
05吳霜點歸鬢	오나라땅 서리는 나그네의 귀밑머리 적시고
06身與塘蒲晚	몸은 못가 부들풀과 함께 늙어간다
07脈脈辭金魚	말없이 금어와 이별
08羈臣守連賤	떠도는 신하는 가난과 고통 속에 산다

36) 曾益, 앞의 책, 103쪽. “密露, 濃也. 衣單露濃, 故寒.”

37) 王友勝·李德輝 校註, 앞의 책, 205쪽. “宋玉의 「神女賦」에는 ‘沐蘭澤, 含芳芳.(난초를 씻는 연꽃은 향기를 머금고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李善의 注에는 ‘沐, 洗也, 以蘭浸油澤以塗頭也.(沐은 씻다로, 난의 즙을 머리에 칠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머리카락이 반질반질하여 눈길을 끄는 것은 난의 즙으로 머리카락을 발랐기 때문이다.”

38) 葉葱奇 校註, 앞의 책, 180쪽 參照.

이 시는 貞元 21년(805)에 지은 것이다. ‘會稽’는 秦나라 때 설치된 郡名으로 지금의 浙江省 紹興 一帶이다. ‘庾肩吾’는 南朝 梁의 궁정시인으로 庾信의 부친이다. 江州刺史를 지냈다. ‘宮體謠引’은 일종의 艷體詩이다. 제1구는 ‘椒壁’은 산초나무를 넣고 갠 진흙으로 궁전의 벽을 바른 것이다. 거기에 ‘黃’을 붙여서 시간이 오래 지남을 표현했다. 시간이 경과하여 낡고 비에 젖어 누렇게 된 것을 말한다. 제2구 반딧불이는 낮고 습한 곳에서 사는 습성이 있어서 ‘濕螢’이라 한 것이다. 제1~2 두 구는 梁나라의 황폐해진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제3구 ‘臺城’은 양나라의 황궁을, ‘應教’는 제왕과 시부를 和唱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應教人’은 바로 庾肩吾를 가리킨다. 그는 일찍이 東宮通事舍人을 지냈는데, 東宮에 있을 때 늘 太子 諸王들과 시문을 화창한 궁정시인이었다. 제4구 ‘銅輦’은 화려한 장식을 한 궁중용 수레로 태자가 타는 것이다. 庾肩吾가 그 꿈을 꾸었다는 것은 그가 태자인 蕭綱을 그리워하면서 과거의 영화를 회상함을 말한다. 제5~6구는 庾肩吾가 옛날 吳나라 땅 會稽로 난을 피하여 간 것과 이미 노쇠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제7구 ‘金魚’는 가슴에 패용하여 大臣임을 나타내는 물고기 모양의 주머니로, 그것과 이별했다는 말은 관직을 사직하였다는 말이다. 제7~8구 두 구는 庾肩吾의 슬픔을 노래하면서도 감정이입하여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結 語

본고는 스물일곱을 살고 간 불행한 젊은 시인이 단지 왕족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철없는 귀공자로 오해받고, 시 또한 세상 물정 모르는 향락적이고 육욕에 사로잡힌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잘못된 평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 의문은 진사시 응시가 選諱라는 악습에 가로 막혀 좌절한 젊은이에게 회재불우의 노래와 함께 당시의 어지러운 시국과 혼탁한 정치에 대한 비판의 노래가 어떻게 없었는지 하는 것이었다.

사실 모든 정치행위의 잘잘못은 최고 통치자에게 귀결된다.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治世를 경영하던 亂世로 파괴되는 황제의 공적이며 황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풍유시 또는 풍자시는 바로 그것을 노래한 것이다. 다만 시를 노래함에 있어서 주제와 표현의 방식 등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시의 내용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하 풍유시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논하였다. 첫째가 最高 統治者에 대한 비판이다. 거기엔 진정 용맹한 장군은 등용하지 않고 환관을 대장군으로 임명한 황제에 대한 비판과 번진의 발호를 막지 못하는 황제의 무능함과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어리석음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支配 階層에 대한 비판이다. 징세를 통한 관리들의 수탈과 부자들의 荒淫과 사치와 왕족의 권력 남용과 전횡에 대한 비판 등을 노래했다. 셋째 民衆의 苦痛에 대한 同情이다. 나라의 사업에 징용되어 불행한 삶을 사는 노인, 궁중에 유폐되어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적시는 궁녀의 슬픔, 그리고 회재불우의 노래 등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李賀의 諷諭詩는 풍유시의 창시자이며 위대한 풍유시 「新樂府」와 「秦中吟」을 남긴 白居易

易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시들이었다. 시가 가져야 할 특성 중의 하나로 상징이나 함축을 들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평이하고 노골적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는 백거이의 풍유시에 비해 예술적 방면에 서는 훨씬 뛰어나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각 내용별로 4수씩 총 12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좀 더 많은 시를 분석하여 李賀 諷諭詩의 진면목을 살펴보는 일은 훗날 고를 달리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王琦, 『李長吉歌詩彙解』, 台北: 世界書局, 民國 71.
 朱自清, 『朱自清集』, 台北: 河洛圖書出版社, 民國 66.
 葉葱奇, 『李賀詩集』, 台北: 里仁書局, 民國 71.
 王友勝·李德輝 校註, 『李賀集』, 長沙: 嶽麓書社, 2003.
 袁行霈, 『中國文學史綱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楊文雄, 『李賀詩研究』, 台北: 文史哲出版社, 民國 69.
 홍상훈, 『시귀의 노래』, 서울: 명문당, 2007.
 沈惠樂, 『李賀詩選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劉若愚(著), 李章佑(譯), 『中國의 文學理論』, 서울: 同和出版公社, 1984.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台北: 華正書局, 民國 71.
 이병한 외(저), 『中國詩와 詩人』, 서울: 사람과 책, 1998.
 郭茂倩, 『樂府詩集』, 台北: 里仁書局, 民國 73.
 宋幸根, 「李賀詩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1996.
 李津, 「淺析李賀刺世詩分類」, 『承德民族師專學報』 31: 1, 2011.
 姜昌洙, 「李賀 詩에 나타난 歷史 人物의 詩的 形象」, 『中國文學研究』 54, 2014.

* 이 논문은 2017년 8월 25일에 투고되어,
 2017년 9월 13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9월 2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9월 29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Lihe's Allegory Poetry

Kang, Changsoo*

Lihe(李賀), who was a student from failed poor family of the royal blood, couldn't apply for the exploratory test due to the bad custom called Bihui(避諱), he left 240 poems in anger and died at an early age of 27 and its "having a talent, but missed the timing(懷才不遇)". In the past, the allegory poems what he left weren't well appreciated in comparison with ghost poems or love poems. But his allegory poems were not suffered by comparison with 'Baijuyi' who is a founder of the 'Allegory poems'. Especially when the meaning of poetry is considered as a symbol or feature, the poetic diction he used surpasses Baijuyi(白居易)'s poems in artistic value.

The following are three interpretations of the contents of allegory poems. First is about criticism against the supreme ruler. It includes the criticism that the supreme ruler appointed eunuch, not the truly courageous general to the position of imperator, and the inability of the supreme ruler who couldn't prevent the abuse of power and just seek the 'perennial youth and long life'. And the second is about criticism against the ruling class. He criticized officials' exploitations through the tax collection and sexual indulgence, extravagance of rich people and abuse of power and dictatorialness of the royal blood. Third is the sympathy for people's pain. For example, an old man who was forced to live in a country's business with unhappiness, a court lady who was confined in a court and misses her hometown and the people has a talent, but missed the timing.

[Key Words] Lihe, Allegory Poetry, Baijuyi, Supreme ruler, Ruling class, People

* Professor, Seokyeong University

